



국악으로 인문학하기

전남도립국악단, '별 일 없는 하루, 특별한 시간(詩間)'

21일부터 3차례 시문학 주제... 정호승·안도현·김용택 시인 강연

와 예술에 대한 심도 있는 강연을 펼친다.

공연 레퍼토리는 이면가락 판소리 '좌우나올 대목', 국악실내악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 춤과 창, 그리고 국악관현악 '가시리', '천년의 북소리' 등이다.

마지막 강연은 11월 4일 열린다. 이 시간에는 '섬진강 시인'으로 잘 알려진 김용택 시인이 '자연이 말해주는 것을 받아쓰다'라는 주제로 자연이 주는 여러 가지 이미지와 시에 투영된 자연의 모습을 나눈다. 강연에서는 이면가락 판소리 '제비노정기 대목', 국악실내악 '나무가 있는 언덕', 장고춤 '단홍', 국악실내악 '오래된 미래' 등도 선보인다.

프로그램이 열리는 기간 동안 강연자의 친필 사진이 들어간 도서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열린다. 참여는 유튜브 또는 네이버 TV에서 별특시를 감상하고, 영상 속에 등장하는 추천도서 제목을 찾은 후 댓글을 달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매주 토요일 국악단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남도립국악단은 오는 11월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정기공연 '오라토리요 집체극 '봄날' 공연을 앞두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처에 헌신한 의료진 및 자원봉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내달 1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완도수목원에서 공연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전남도립국악단의 '별 일 없는 하루, 특별한 시간(詩間)' 공연 녹화 모습.

'삶이 곧 시가 되는 일상, 감성을 일깨울 특별한 시간(詩間)이 찾아온다'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류형선)이 국악과 인문학을 접목시킨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국악으로 인문학하기 시즌1 '별 일 없는 하루, 특별한 시간(詩間)' (이하 별특시)은 국악이라는 예술을 매개로 인간의 언어부터 문학, 역사, 철학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공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시즌1은 시문학을 주제로 하며, 앞으로 시즌 2, 3 등을 꾸준히 선보일 계획이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문화재단과 전남도립국악단이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21일부터 3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유튜브, 네이버 TV 채널을 통해 녹화 중계한다. 약 2시간 동안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양지현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열리며, 정호승·안도현·김용택 시인을 초청해 삶이 곧 시가 되는 일상을 나눈다.

21일 강연에는 '슬픔이 기쁨에게', '서울의 예수', '외로우니까 사랑이다' 등으로 알려진 정호승 시인이 '정호승의 시 이야기-가을의 길목에서'란 주제로 가을 감성을 일깨우는 이야기를 전한다. 판소리 '심봉사 물에 빠지는 대목', 국악실내악 '집동새', '용서하고픈 기억', 창작사물 '굿 TIME'도 함께 선사한다.

28일에는 '너에게 묻는다', '겨울 강가에서' 등을 지은 안도현 시인이 '시적인 것은 어디에 있는가'란 주제로 작가에게 시적 영감을 주는 발상지

선의 흐름으로 그려가는 다양한 표현들

송유미 개인전, 29일까지 예술공간 집

추상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는 송유미 작가의 8번째 개인전이 29일까지 예술공간 집에서 열린다.

'The beginning'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송 작가는 새로운 시선으로 작업해온 추상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작들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선'의 무한한 확장과 감각적인 표현들을 통해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송 작가는 대학 4학년 때부터 '선'을 적극적으로 활용, 추상작업을 해왔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관심은 주작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주작의 자유롭고 기품 있는 모습을 통해 '자유'를 비롯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해 왔다.

20년간 추상작업에 대한 고민을 이어온 송 작

가는 올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100일 동안 쉬지 않고 하루에 한 점씩 100일 드로잉을 진행해 온 것. 그는 다채롭고 변화무쌍한 '선'의 가능성에 주목했고, '선'을 긋는 과정에서 과거 무예수련으로 익힌 호흡으로 선의 흐름을 그려나가며 새로운 작업의 모티브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정중동, 동중정의 에너지는 액션페인팅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한 무브먼트 드로잉과 함께 다양한 재료와 색을 이용한 실험을 가능케했고, 새로운 작업을 위한 출구 역할을 했다.

조선대 대학원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 전남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한 송 작가는 8회의 개인전과 100여회의 국내외 단체전 및 아트페어에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The beginning'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 갤러리에서 열리는 'MAZAR : AR보물찾기' 전 모습. 원 안은 미션을 완수한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는 홀로그램 카드.

"미로 속에서 감춰진 보물 찾아라"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갤러리, 'MAZAR : AR보물찾기' 전

'미로 속에서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은 본관 어린이갤러리에서 'MAZAR : AR보물찾기' (2021년 10월 3일까지)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어린이들이 전시를 관람하면서 미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된 인터랙티브(관객참여형) 전시로 작품 제목인 'MAZAR'는 'MAZE(미로)'와 'AR(증강현실)'의 합성어다.

이번 전시는 미디어 아티스트 everyware(에브리웨어)의 작품으로 구성, 선보인다. everyware는 서울대에서 각각 기계항공공학학과 디자인을 공부한 방현우, 허윤실이 2007년에 결성한 미디어 아티스트 팀이다. everyware는 어린이 관람객의 발달 연령을 고려해 공학적, 디자인적, 인문학적 시각에서 AR 소프트웨어와 미로구조물을 연구 및 설계했

고 어린이들은 관람을 통해 공간지각력, 추리력,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를 얻게 한다.

아이들은 전시작품 속 미로의 구조물을 탈출하는 동시에 미로 곳곳에 숨겨진 보물들을 AR 기기를 통해 수집하며 흠여버린 친구들 25마리를 모두 모으면 각각의 캐릭터가 담긴 홀로그램 카드 5장을 획득할 수 있다. 한 관람객 당 체험 시간은 20분이다.

everyware는 뉴미디어 테크놀로지와 예술의 접점에서 현실이 가상세계와 자연스럽게 만나고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면서 만들어지는 독특한 긴장감과 이야기거리들을 작품으로 표현해 왔다. 특히 관람객이 몸을 사용해서 직접 참여하는 인터랙티브 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과 일본 국립도쿄미술관, 영국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 등 국내외 유수의 미술관에서 작품을 전시했다. 당일 현장접수. /김미은 기자 mekim@

퓨전민속음악의 만남...에폴드 플루트 앙상블

25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플루트 앙상블과 함께하는 퓨전민속음악.'

플루트 앙상블과 국악, 재즈를 접목시킨 음악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에폴드 플루트 앙상블 제15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25일 오후 7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광주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며, 퓨전민속음악을 들려준다.

1부에서는 '푸른 옷소매', '샬리 정원 옆에', '희망', '오 나의 태양', '검은 눈동자' 등 우리에게 친숙한 세계 전통음악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아리랑', '금잔디', '새야새야 파랑새야' 등 한국의 민요를 연주한다. '벚꽃' 주제에 의한 '대금과 25현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은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플루티스트이자 (주)에폴드뮤직 이현경 대표가 지휘자로 등장해 눈길을 끈다. 공연에는 플루티스트 조민희·이윤지·민들레·김애리·최효석·김란·최애라·최선옥·안주희·오희연·송태훈·전상진 등이 출연한다.



강윤숙

이현경

또, 김한아(가야금)와 김형석(대금)이 협연자로 무대에 오르며, 강윤숙(재즈피아노), 하건(드럼), 박효은(첼로), 김성광(기타), 이왕재(국악 타악) 등이 게스트로 함께한다.

지난 2008년 창단된 에폴드 플루트 앙상블은 플루티스트 음악감독 이현경을 중심으로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다양한 연주 및 초청음악회 등을 선보이며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010-6331-6834. /전은재 기자 ej6621@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